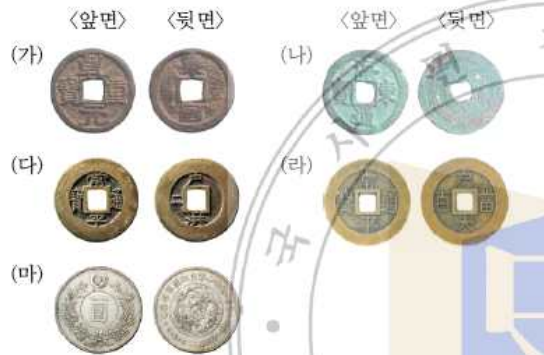


1. (가)~(마) 화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당의 건원중보를 본떠 만들었다.
- ② (나) - 대각국사 의천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조되었다.
- ③ (다) - 세종 때 저화 통용 중단에 대응해 주조되었다.
- ④ (라) - 경복궁 중건에 따른 재정 확충을 위해 발행되었다.
- ⑤ (마) - 근대적 조폐 기관인 전환국에서 발행되었다.

정답: ③

* 역대 화폐의 역사

(가) **건원중보**: 고려 성종 때 최초로 만들어진 철전(996). 유통에는 실패하였다.

(나) **해동통보**: 고려시대 금속화폐(동전)의 일종. 화폐 유통에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추진되던 숙종 7년(1102)에 주조되었다. 숙종대의 화폐 유통책은 국가 재정의 확보에 있었으며, 윤관과 대각국사 의천은 대표적인 화폐 유통론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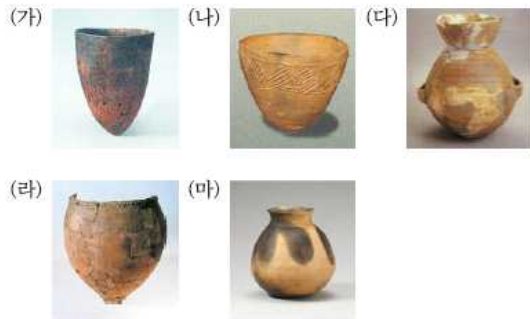
(다) **상평통보**: 인조 때(1633) 김신국·김육 등의 건의에 따라 처음 주조되었다가 결과가 나빠 유통을 중지된 후, 1678년(숙종 4) 다시 영의정 허적, 좌의정 권대운 등의 주장에 따라 다시 주조되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유통되어 조선 말기에 현대식 화폐가 나올 때까지 통용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폐

(라) **당백전**: 1866년 10월 우의정 김병학의 제의에 따라 금위영에서 11월 6일 주조, 발행하여 1867년 6월 17일 중지될 때까지 주조된 화폐. 당백전은 모양과 중량이 당시 통용되던 상평통보의 5,6배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당백전 1매의 명목가치는 실질가치의 약 20배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인 악화(惡貨)였고 경복궁 중건에 따른 재정 확충의 목적으로 주조되었다.

(마) **‘일환’ 은화**: **경성전환국**(1885)이 발행한 신식 은화. 널리 통용되지 못하고 곧 중단되었으며, 곧이어 발행된 백동화(1892)가 화폐정리사업(1905) 실시 이전까지 널리 통용되었다

③ 세종 때(1423) 유통되던 지폐인 저화의 가치가 날로 떨어져서 화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자 그 보완책으로 동전을 주조하여 저화와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통보)

2. (가)~(마) 토기를 등장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 ① (가)-(나)-(다)-(마)-(라) ② (가)-(나)-(라)-(다)-(마)
 ③ (나)-(가)-(라)-(다)-(마) ④ (나)-(가)-(마)-(라)-(다)
 ⑤ (라)-(가)-(나)-(마)-(다)

정답: ③

* 토기의 순서

(가)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로서 이른민무늬토기, 덧무늬토기 보다는 후대의 토기이다

(나) **덧무늬 토기**: 이른민무늬토기와 함께 신석기 초기의 토기

(다) **미송리식 토기**: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는 청동기시대 토기로서 민무늬보다는 후대에 나타났다

(라) **덧띠새김무늬 토기**: 신석기 말기 ~ 청동기 초기(B.C 2000~1500)

(마) **가지무늬 토기**: 이 그릇은 붉은간토기라고 부르는 토기가 발전한 것으로서, 기원전 400년 전후 무렵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후기 청동기~초기 철기)

3. 홈페이지의 (가)에 탑재될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①

* 금관 가야의 유물

보기의 자료들(청동술, 이형 석제품, 바람개비 모양 동기, 원통 모양 동기, 거울 조각 펜던트)은 모두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관가야의 유물이다.

① 고령 지산동 32호분에서 출토된 대가야의 금동관이다.

②, ③, ④, ⑤ 모두 김해 대성동 고분군 출토 유물과 유적이다

4. 다음 무덤 양식이 등장한 시기의 새로운 변화로 옳은 것은?

[1점]



- ① 영혼 숭배와 샤머니즘의 대두
- ② 돌궐어를 이용한 농경의 시작
- ③ 철제 공구와 철제 무기의 등장
- ④ 빗살무늬 토기를 이용한 식량의 저장
- ⑤ 동검과 동경을 착용한 제사장의 등장

정답: ③

* 독무덤(왼쪽)과 널무덤(오른쪽): 철기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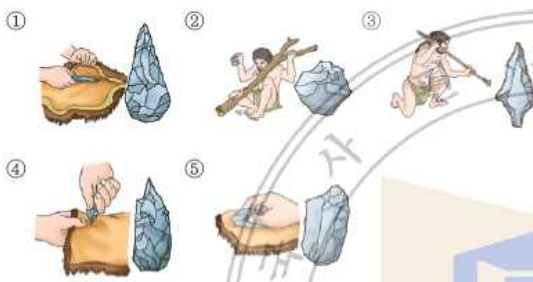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철기 시대로 접어 들었다. 특히,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업이 발달하여 경제 기반이 확대되었다. 철제 무기와 철제 연모를 쓰게 됨에 따라 그때까지 사용해 오던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 변화했다.

- ① 신석기 시대의 종교관념이다
- ② 신석기 시대의 농경 모습이다
- ④ 신석기의 대표적 토기
- ⑤ 청동기 때부터 제사장과 족장이 등장(제정일치)하였다. 이들의 모습은 칼, 거울, 방패(농경문 청동기, 농경문 청동기 뒷면)등의 청동 제품이나 토제품, 바위 그림 등에 반영되었다.

5. 밑줄 그은 '이 석기'의 사용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찍개와 함께 전기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이 석기는 주로 아프리카, 유럽, 서아시아, 인도 등에서 발견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 고고학자 H. 모비우스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석기 시대를 이 석기 문화권과 찍개 문화권으로 구분하였다.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는 찍개로 대표되는 자갈돌 석기 문화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1978년 한반도에서 이 석기가 발견되면서 모비우스의 학설은 무너졌다.



정답: ①

* 아슐리언 주먹도끼(양면핵석기, 구석기: 연천 전곡리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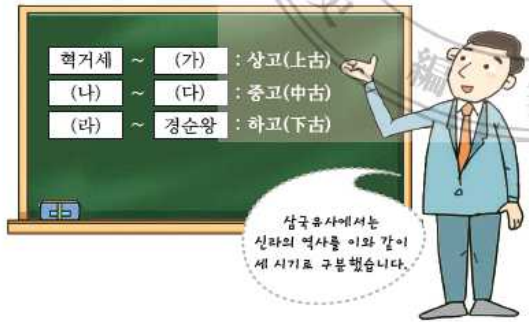
전기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편석기로서 양면핵석기(兩面核石器)라고도 한다. 모양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몸통이 두툽한 몸돌의 한쪽을 여러 면에서 깨뜨려 끝을 곡괭이처럼 뾰족하게 만들거나 칼날처럼 날카롭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손으로 쥌 수 있게 살짝 다듬은 모습이 보통이다.

주먹도끼는 아프리카를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대륙에서 주로 발견된다. 종래에는 유럽과 서아시아지역은 주먹도끼를 주로 썼으며 동아시아지역은 자갈돌을 깨뜨려 만든 찍개를 주로 썼다고 구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래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에서도 아슐리안공작의 주먹도끼가 다수 발견(1978, 연천 전곡리 첫 출토)되어 주먹도끼 문화의 범위를 한정하는 종래의 구분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유럽쪽에 비해 양면가공이 아닌 단면가공이 주류를 이루며 석기의 전면에서 격지를 떼어내지 않고 일부는 자연면을 그대로 남겨두는 등 다소간 차이가 있다.

- ① 주먹도끼의 사용모습: 동물의 가죽을 벗기거나 사냥 도축 등의 다용도로 사용
- ② 찍개의 사용모습
- ③ 잔석기 사용모습: 중석기 시대. 한 개 내지 여러 개의 석기를 나무나 뼈에 꽂아 쓰는 이음 도구를 만들게 되었다. 이음 도구에는 톱이나 활, 창 등이 있었다
- ④ 뿔개의 사용모습
- ⑤ 긁개의 사용모습

6.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 보기 > —

- ㄱ. (가) -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ㄴ. (나) -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였다.
 ㄷ. (다) - 영일 냉수리 신라비를 세웠다.
 ㄹ. (라) - 진골로서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삼국유사의 신라 시기 구분에 따른 역사적 사실

일연의 '삼국유사'의 신라 시기 구분

상고(혁거세-지증왕):	고유 왕명 시대
중고(법흥왕-진덕왕):	불교식 왕명 시대
하고(무열왕-경순왕):	중국식 시호 시대

㉠ 진흥왕 때의 일이다

㉡ 법흥왕 때부터이다

㉢ 영일 냉수리 신라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평면 냉수리에서 발견된 신라시대의 이두비(吏讀碑).

이 비석은 앞면에 '지도로 갈문왕'이라는 지증왕의 즉위 전 호칭을 썼고, 계미(癸未)라는 간지(干支)로 미루어 443년(눌지왕 27) 또는 503년(지증왕 4)에 건립된 것이 분명하여 이제까지 신라 최고(最古)의 비로 알려졌던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고비(524년 건립)보다 81년 또는 21년 앞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 비문에는 중국 문서에서 발견되는 신라의 옛 국명인 사라(斯羅)가 최초로 나오고, 또 최초로 임금(지증왕)의 본명이 '지도로'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으며, 해부·사해부 등 신라의 옛 지명과 아간지·나마 등의 관등명이 나타나 신라 상대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내용은 왕교(王敎)를 받아 중신회의가 지도로 갈문왕에 의해 주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 중신회의를 신라 최고회의였던 화백으로 보고, 갈문왕이 화백의 의장을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추론도 나오고 있다

㉣ 무열왕이 첫 경우이다

* 삼국사기에 따른 신라 시기 구분

상대: 박혁거세~진덕여왕(성골 출신)
중대: 무열왕~혜공왕(무열왕계, 왕권강화)
하대: 선덕왕~경순왕(내물왕계, 왕권 약화)

7.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가)



(나)



(다)



(라)



< 보기 >

- ㄱ. (가)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다.
 ㄴ. (나) - 중국의 전탑을 본떠 벽돌을 구워 만들었다.
 ㄷ. (다) - 해체 과정에서 사리호와 사리불안기가 발견되었다.
 ㄹ. (라) -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양식이 계승되었다.

① ㄱ, ㄴ
 ④ ㄴ, ㄹ

② ㄱ, ㄷ
 ⑤ ㄷ, ㄹ

③ ㄴ, ㄷ

정답: ②

* 역대 불탑들

(가)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 석가탑은 통일 이후 축조해 온 통일 신라 석탑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 탑의 날씬한 상승감 및 넓이와 높이의 아름다운 비례는 부처가 항상 가까이 있음을 이상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8세기 초엽에 만들어진 두루마리 불경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나) **분황사 모전탑**: 분황사탑은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모전) 쌓은 탑으로 지금은 3층까지만 남아 있다.

(다) **미륵사지 5층 석탑**: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은 서탑만 일부가 남아 있는데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2009년 1월 14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보수·정비하다가 심주(心柱) 상면(上面) 중앙의 사리공(舍利孔)에서 금제 사리호(金製舍利壺), 금제사리 봉안기(金製奉安記) 등 사리장엄(舍利莊嚴)을 발견하였다.

(라) **월정사 8각 9층 석탑**: 고려시대로 들어와 4각형 평면에서 벗어난 다각형의 다층(多層)석탑이 북쪽 지방에서 주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탑도 그런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 벽돌을 구워 만든 것이 아니라, 석재를 이용하여 전탑을 흉내내어 쌓은 탑이다

㉡ 고려 후기의 경천사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뜬 것으로 조선 시대(원각사지 10층석탑)로 이어졌다.

8. (가) 지역의 각 시대별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고려 시대 (가)의 연혁



- 성종 2년 12목(牧)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12년에는 상평창이 설치되었다.
- 현종 9년 8목 중의 하나가 되었다.
- 고종 42년 이곳에 속한 다인철소(多仁鐵所) 주민들이 몽골군 방위에 공을 세웠다고 하여 익안현(翼安縣)으로 승격시켰다.

- ① 신라 -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졌다.
- ② 통일 신라 - 부근 4개 촌락에 대한 민정 문서가 남아 있다.
- ③ 고려 - 주진군이 주둔하였다.
- ④ 조선 - 조세 운송을 위해 조창이 설치되었다.
- ⑤ 일제 강점기 - 조선 형평사 창립 대회가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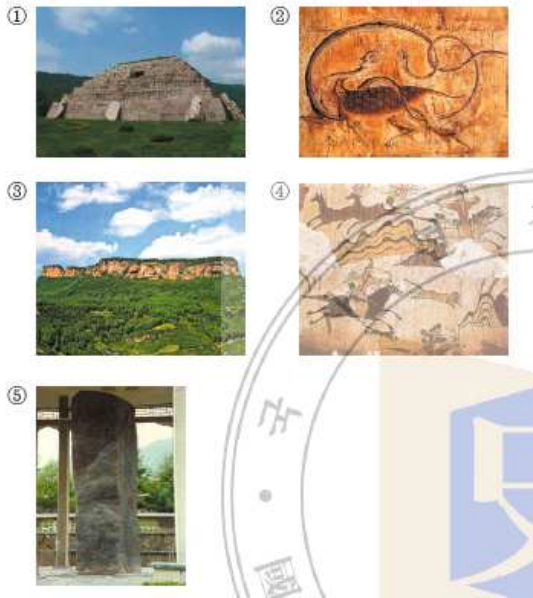
정답: ④

* 충주의 역사

충주는 본래 마한, 백제의 영토(근초고왕)이 었다가 고구려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이 지역에 중원 고구려비를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그후 신라 진흥왕 때 신라 영토(국원성)가 되었고, 통일신라기에는 5소경 중 하나인 중원경이 되었으며, 고려 시대에는 목(牧)으로 되었다. 몽골의 침입 때 이곳 산하 다인철소(소: 천대만는 특수부락)의 주민들이 분투하여 공을 세워 일반 현으로 승격한 일화가 유명하다.

- ① 진흥왕 순수비가 있는 곳은 창녕, 북한산, 황초령, 마운령이고, 단양적성비는 순수비는 아니지만 한강을 차지한 기념비이다
- ② 통일신라 민정문서 기록의 대상 지역은 서원경(청주)이다
- ③ 고려의 주진군은 양계(군사적 행정구역, 북계.동계)에 주둔하였다. 충주는 목이므로 일반 군현이고 주현군이 주둔하였다.
- ④ 조선 조운로에 있어서는 충주 지역은 가흥창이 조창으로 설치되었다
- ⑤ 조선 형평사의 형평 운동은 진주에서 시작되었다.

9. 지도에서 ●로 표시된 지역을 답사할 때 볼 수 있는 고구려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3점]



정답: ②

* 고구려의 후기 수도 평양 주변 지역의 문화 유산

고구려는 기원 전 37년에 오녀산성(졸본성, 현 요녕성 환인현)을 도읍로서 건국해, 서기 3년 유리왕 때 환도산성(길림성 집안)으로 천도하였다. 그 후 인근 평성인 국내성(길림성 집안)으로 옮겼다가, 427년 장수왕 때 평양으로 다시 천도 했다.

- ① 장군총(길림성 집안)
- ② 사신도 중 현무도(평남 강서대묘)
- ③ 오녀산성(요녕성 환인현)
- ④ 수렵도(길림성 집안 무용총)
- ⑤ 광개토대왕릉비(길림 집안)

10. 연표의 (가)~(마)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1876	1882	1889	1894	1905	1907
(가)	(나)	(다)	(라)	(미)	
강화도 조약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방곡령 사건	갑오 개혁	을사 조약	정미 7조약

- ① (가) - 평양에 대동 상회, 서울에 장통 회사가 설립되었다.
- ② (나) - 최초의 민간 은행인 조선 은행이 설립되었다.
- ③ (다) - 한성 전기 회사가 설립되어 발전소를 건설하였다.
- ④ (라) - 박기종의 대한 철도 회사가 경의선 부설권을 허가 받았다.
- ⑤ (마) - 이도재 등이 농광 회사 설립을 허가받았다.

정답: ④

* 근대말의 시기별 경제·사회 상황

• 1876~1882: 강화도조약 직후 일본의 경제적 무역 독점 시대. 단, 거류지무역(개항장 10리 이내)의 한계가 있어 내륙진출을 위해서 국내 보부상·객주·여객 등의 조력이 필요했다.

• 1882~1889: 청의 조청수륙무역장정 체결로 청·일 상인들의 도성과 내지 진출이 이루어지며 국내 상인들의 몰락이 시작. 거대 외국 상회사를 대응하기 위하여 상회사(대동상회, 장통회사)를 설립하기 시작

• 1889~1894: 일본의 쌀 유출에 대응한 방곡령이 실패하고 청·일 상인들 간의 치열한 상권 경쟁

• 1894~1905: 광무개혁의 식산흥업 정책에 따라 근대적 상회사·은행 등이 등장하였으나 자본·기술 부족으로 외국계에 시설이 종속되거나 넘어감

• 1905~1907: 화폐정리사업(1905)으로 다수의 상회사, 민족 자본 은행등이 도산되고 자본이 예속되어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남(1907)

① **대동상회·장통회사**(1883): 밀려오는 외국 상회사를 대응하기 위하여 객주·여객 및 보부상들이 세웠다

② **조선은행**: 1896년(고종 33) 설립된 한국 최초의 은행. 민간 자본이다

③ **한성전기회사**: 1898년 1월 김두승·이근배가 청원하여 설립한 한국 최초의 전기회사. 그러나 회사 운영 도중 자본·기술의 부족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 회사의 모든 사업은 미국인 H. 콜브란·보스워스와 의 청부계약에 의해 이루어졌고, 결국 미국을 거쳐 일본으로 매각되었다.

④ **경의선 철도부설권**(1896): 본래 프랑스에서 조선으로 갔다가 일본이 러일전쟁(1904)을 빌미로 사실상 강탈하였다

⑤ **농광회사**: 1904년 일본의 토지침탈기도(황무지개간요구)에 대응하여 개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근대적 농업회사로 같은해 해체되었다.

11. 밑줄 그은 '사마왕'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영동대장군 백제 <u>사마왕</u> 이 나이 62세 되던 계묘년 5월 7일 임진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12일 갑신일에 대묘에 잘 모셨다.
	을사년 8월 12일에 영동대장군 백제 <u>사마왕</u> 이 전(錢) 1만 문(文)으로 토지신에게서 땅을 사 무덤을 만들었다.

- ①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② 관품제를 정비하고 관복제를 도입하였다.
- ③ 칠지도를 제작하여 왜의 국왕에게 보냈다.
- ④ 불교를 공인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 ⑤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정답: ①

* 백제 무령왕에 대하여

- **무령왕릉 지석**: 영동대장군이란 무령왕이 중국 양나라 고조에게서 받은 작호이며, 사마왕은 무령왕의 이름이다
- **매지권**: 무령왕릉 지석 뒷면에는 무령왕이 토지신에게 돈 1만 문(文)을 주고 능을 만들 땅을 사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토지매매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중국 돈인 오수전을 그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아 오늘날과 유사한 화폐거래를 통한 토지 매매를 유추할 수 있다.

무령왕: 백제의 제25대 왕(501~523). 혼란한 백제를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백제 중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 고구려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여 수시로 고구려의 변경을 공격했다.

512년 중국 양(梁)나라에 조공하였으며, 521년 양나라의 무제는 무령왕을 사지절도독백제제군사 영동대장군(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에 책봉하였다.

- ② 신라 법흥왕
- ③ 백제 근초고왕
- ④ 신라 법흥왕
- ⑤ 백제 동성왕

12. 다음 범례에 따라 편찬된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정통(正統)은 단군·기자·마한·신라 분무왕(9년 이후)·고려 태조(19년 이후)를 말한다. 무통(無統)은 삼국이 병립한 때를 말한다.
- 위만은 잔적(簒賊)인데, 통감에는 단군·기자와 함께 3조선이라 일컬어서 마치 덕도 같고 의리도 같은 것처럼 하였으나, 이제 폄졸(貶黜)하여 참국(僭國)한 예에 따랐다.

— < 보 기 > —

- ㄱ. 고증사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ㄴ. 주자의 『통감강목』을 모범으로 삼았다.
- ㄷ. 세기(世紀), 지(志), 전기(傳紀)로 구성되었다.
- ㄹ. 신라기를 독립시켜 통일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안정복(1712~1791)의 동사강목

이익의 제자인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저술하여 이익의 역사 의식을 계승하였다. 이 책은 고조선으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것으로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삼한정통론)을 세워 이를 체계화하였으며, 역사 사실들을 치밀하게 고증하여 고증 사학의 토대를 닦았다.

동사강목의 특징은 정통국가, 정통군주에 대하여 구별하여 서술하였다. 즉 정통국가를 기자조선, 마한, 통일신라, 고려로 보았으며, 마한이 멸망한 뒤의 삼국시대는 정통국가가 없는 시대로 보았다

㉠ 동사강목의 서술체제는 편년체이나 주자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체제에 따라 강(綱)과 목(目)으로 나누어, 강에서는 기본이 되는 사실을, 목에서는 그 기본 사실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조선의 ‘동국문헌비고’ 등의 서적은 물론 중국의 사서 523종과 일본의 사서 22종 등 550여종의 외국 서적에서 조선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세기(世紀)와 지(志) 및 전기(傳紀) 부분으로 나누어 편찬한 기전체 방식의 역사서는 한치윤의 ‘해동역사’이다.

㉡ “...고구려의 강대하고 현저함은 백제에 비할 바가 아니며 신라가 자처한 땅의 일부는 남쪽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김씨(김부식)는 신라사에 쓰여진 고구려 땅을 근거로 했을 뿐이다...” 라 하여 신라 통일의 의미를 평가 절하하였다

신라기를 독립시켜 신라통일의 의미를 부각시킨 역사서는 서거정의 ‘동국통감’이다.

13. 고려 시대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신(臣) 최충변은 어려서 대강 글 짓는 재주를 배웠기에 일찍이 과거에 뜻을 두었으나 논리정연하게 글 쓰는 능력이 없고 문서도 잘 다루지 못합니다. (가)을(를) 통해 관리로 채용은 되었으나 유학을 공부하지 않고 벼슬길에 오른다면 장차 무슨 낮으로 벼슬살이를 하겠습니까?
- 윤공(尹公)의 이름은 승해요, 자는 자장이니 수주 수안현이 본 고향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을 써 나이 열여덟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거듭 이부의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다. 가문 덕에 (가)을(를) 통해 지수주사판관(知水州事判官)이 되었다.

-「동국이상국집」-

< 보 기 >

- ㄱ.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 ㄴ. 한직제(限職制)의 제한이 있었다.
- ㄷ. 왕족과 공신의 후손도 대상이 되었다.
- ㄹ. 대상 연령은 원칙적으로 13세 이상이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고려의 음서제에 대하여

고려는 과거제 이외에 공신과 종실의 자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 등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료가 될 수 있는 음서의 혜택을 받아 관료로서의 지위를 세습하기도 하였다. 이는 고려의 관료 체제가 귀족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 과거의 정기 시험인 식년시를 말한다
- ㉡ 음서로서 관리가 된 자가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된 자보다 많았고 출세도 빨랐다는 사실은 한직제의 제한이 없음을 보여준다
- ㉢ 고려 시대에는 공신과 종실의 자손 외에도 5품 이상 관료의 아들, 손자, 사위, 동생, 조카 등에게 음서의 혜택이 주어졌다.
- ㉣ 음관을 제수받는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5세를 전후하여 관직에 등용되었다

14. 밑줄 그은 '이 건물'로 옳은 것은? [1점]

봉황산 중턱에 위치한 이 사찰은 676년(문무왕 16)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화엄의 가르침을 펴낸 곳이라고 한다. 특히 아미타여래불이 모셔져 있는 본전은 고려 시대에 지어진 주심포식 팔작지붕의 건물이다. 배흘림지둥, 삼중으로 뻗어 있게 겹쳐진 포작(包作), 이중 서까래로 인한 지붕의 가벼운 곡선 등이 이 건물의 특색이며, 전체적으로 강중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 사찰에는 의상 대사와 신표 남자의 애절한 전설이 남아 있다.



정답: ⑤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18호로 지정된 정면 5칸, 측면 3칸, 단층 팔작지붕 주심포계 건물이다. 부석사의 본전으로서 676년(신라 문무왕 16)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창건하였으나 1916년의 화재, 수리 때 발견된 묵서명(墨書銘)에 의하면 1376년(고려 우왕 2) 중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① 예산 수덕사 대웅전: 고려 후기. 부석사 무량수전과 동일한 주심포 배흘림 양식이지만 팔작지붕이 아닌 맞배지붕이다
- ② 안동 봉정사 극락전: 고려 후기.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려져 있는 주심포 배흘림 양식 건물
- ③ 구례 화엄사 각황전: 17C, 다층 구조, 내부가 하나로 통합, 양반 지주 후원
- ④ 김제 금산사 미륵전: 17C, 다층 구조, 내부가 하나로 통합, 양반 지주 후원

15. 밑줄 그은 '본 협약'에 의해 등재된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그것이 어느 인민에 속하는지를 막론하고, 문화재 및 자연재에 관한 현행 국제 협약, 권고 및 결의가 이러한 전기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세계의 모든 인민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고려한다. 문화유산 및 자연 유산의 일부는 현저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인류 전체의 세계 유산의 일부로서 보존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 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새로운 규정들을 협약의 형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긴요함을 고려하고, 제16차 총회에 이 문제가 국제 협약의 대상으로 될 것을 결정한 바, 1972년 11월 16일 본 협약을 채택한다.



정답: ①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whc;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다.

2010년 현재 여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은 다음과 같다

해인사 장경판전 (1995)
종묘 (1995)
석굴암.불국사 (1995)
창덕궁 (1997)
수원화성 (1997)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2000)
경주 역사 지구 (2000)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
조선왕릉 (2009)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2010)

16. (가)와의 항쟁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가) 이번에는 쉼나무에 사람의 기름을 적시어 두툼게 쌓아 놓고 불을 지르며 성을 공격하였다. 박서는 물로 그 불을 끄려 하였으나 불이 더 타 올랐으므로 군사들에게 진흙을 가져다가 물에 풀어서 뿌리게 하니 불길이 꺼졌다. 다시 적들은 수레에다 건초를 적재하고 불을 질러 성 문루(門樓)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박서는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물을 퍼부어 불을 꺾었다. 이와 같이 적들이 30일 간이나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지혜를 다 짜고 모든 수단을 다하여 공격하였으나, 박서가 임기응변으로 방어를 굳게 하였으므로 적군이 이기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고려사』-

- ① 최영이 홍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 ② 양규가 홍화진 방어에 성공하였다.
- ③ 나세가 진포에서 화포로 공격하였다.
- ④ 정세운, 이방실 등이 개경을 수복하였다.
- ⑤ 임연이 진천에서 차라대의 군사를 격퇴하였다.

정답: ⑤

* 고려의 몽고와의 항쟁 (1차: 1231))

고려에 왔던 몽고 사신일행이 귀국하던 길에 국경 지대에서 피살되자 이를 구실로 몽고군이 침입해 왔다(1231). 힘겹게 의주를 점령한 몽고군은 귀주성에 박서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길을 돌려 개경을 포위하였다. 이에 고려는 몽고의 요구를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몽고군도 큰 소득 없이 물러갔다.

그러나 당시 집권자인 최우는 몽고의 무리한 조공 요구와 간섭에 반발하여 강화도로 도읍으로 옮기고, 장기 항전을 위한 방비를 강화하였다. (1232~1270)

이에 몽고가 다시 침입해 왔으나 처인성(경기 용인)에서 장수 살리타가 김윤후에게 사살되자 퇴각하고 말았다. 이후 고려는 여러 차례 몽고 침략을 끈질기게 막아냈다.

- ① 고려 말 왜구와의 대첩이다
- ② 고려 초 거란의 2차 침입 때의 선전이다
- ③ 고려 말 최무선의 화포로 승리한 진포대첩의 주인공이다
- ④ 고려 말 홍건족의 침입 때의 승장들이다
- ⑤ 임연은 1254년 (고종 41년) 몽고군의 침입해 오자 향리(鄉里)인 진천에서 주민들을 모아 몽고군을 격퇴한 공으로 대정(隊正) 직을 받음으로써 관직에 나아갔다. 후일 임연은 최씨 정권 몰락 후의 무인 지도자로서 대몽항쟁을 주창하였고, 이는 개경환도 뒤의 삼별초의 항쟁으로 이어졌다.

17.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계축년에 구삼국사(舊三國史)를 얻어서 동명왕 본기를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던 것보다 더 자세하였다. 그러나 역시 처음에는 그를 믿지 못하였으니, 귀환(鬼幻)스럽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여러 번 음미하면서 탐독하여 차차로 그 근원을 찾아가니, 이는 환(幻)이 아니 오 성(聖)이며, 귀(鬼)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하물며 국사는 직필(直筆)하는 책이니 어찌 그 사실을 망전(妄傳)하겠는가?

- ① 불일결사문(佛日結社文)을 저술하였다.
- ② 최씨 정권 하에서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 ③ 연경의 만권당을 통해 중국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 ④ 「서하집(西河集)」을 저술하여 문신들의 수난을 표현하였다.
- 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른 기전체 역사서를 저술하였다.

정답: ②

* 이규보와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

이규보(1168~1241): 고려시대의 문신·문인. 명문장가로 그가 지은 시풍은 당대를 풍미했다. 몽골군의 침입을 진정표(陳情表)로써 격퇴하기도 하였다. 저서에 ‘동국이상국집’, ‘국선생전’ 등이 있으며, 대표적 작품으로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된 ‘동명왕편’이다.

① <불일결사문>은 일연

② 이규보는 1207년 최충헌에 의해 권보직한림(權補直翰林)으로 발탁되어, 1237년에는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감수국사(監修國事)·태자대보(太子大保)로 벼슬에서 물러났는데, 문하시랑평장사는 재부(宰府: 중서문하성)의 정2품 벼슬이므로 재상(재부의 정2품 이상)의 반열이다.

③ 백이정, 이체현이 대표적이다

④ ‘국순전’, ‘공방전’의 저자 임춘의 저술

⑤ 김부식의 삼국사기

18. 지도의 □로 표시된 지역에서 고려 시대에 볼 수 있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개경 환도에 반발하는 삼별초
- ② 송나라 상인과 교역하는 고려 상인
- ③ 왜구의 침입으로 고통 받는 백성들
- ④ 「직지」를 금속활자로 간행하는 인쇄공
- ⑤ 연해안을 간척하여 농경지로 개간하는 농민

정답: ④

* 강화도, 교동도와 벽란도의 고려시대 모습

-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대외 무역의 발전과 함께 국제 무역항으로 변화하였다. 고려의 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송과의 무역이었다.
- 12세기 이후에는 연해안의 저습지와 간척지도 개간되어 경작지가 확대되어 갔다. 특히 강화도 피난 시기 이후에는 강화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간척사업이 추진되었다.

- ① 삼별초의 항쟁은 개경환도(1270) 이후에 강화도->진도->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며 투쟁하였다.
- ② 벽란도에서 볼 수 있다
- ③ 왜구는 14세기 중반부터 침략해 왔다. 가까운 경상도 해안에 출몰하기 시작한 왜구는 점차 전라도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고, 심지어 개경 부근에도 나타났다.
- ④ 「직지심체요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다(1377)
- ⑤ 강화도 피난 시기(1232~1270) 이후에는 강화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간척사업이 추진

19. 자료의 주장이 제기된 국왕 때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중국의 제도는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사방 풍속, 습관이 각각 그 지방 성질에 따라야 하니 모두 다 변경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중 예악(禮樂)·시서(詩書)의 교훈과 군신·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비루한 것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수레와 말, 의복 등의 제도는 자기 나라 풍속에 맞게 하여 사치와 검소를 적절하게 할 것이고, 무리하게 중국과 꼭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 3교(유·불·선)는 제각기 일삼은 바가 다르므로 이를 행하는 사람이 혼동하여 하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불교를 받들어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요, 유교를 받들어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입니다. 몸을 닦는 것은 곧 내생(來生)을 위한 도움이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오늘을 돕습니다.

(보 기)

ㄱ. 전국이 10도로 개편되었다.
 ㄴ. 개경과 서경의 팔관회가 폐지되었다.
 ㄷ.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이 실시되었다.
 ㄹ. 거란 침입에 대비하여 평군이 조직되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 최승로의 시무28조와 성종의 정치

제사된 자료는 최승로의 시무 28조이다.

핵심 주장: (1)지나친 불교 행사 자제, (2) 지방 관리 파견 (3)중앙 정치 제도 마련, (4) 유교 정치 이념의 채택->왕권과 신권의 조화

성종(981~997):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성종은 즉위 후 국가의 오랜 폐단을 없애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정책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게 하였다.

이에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의 억제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

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개경과 서경의 팔관회 폐지)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성종은 먼저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 하였다. 또한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여 유학 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과거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어서 성종은 중앙의 통치 기구를 개편하였다. 당의 제도를 받아들인 2성 6부제를 기반으로 하고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중앙 관제를 정비하였다. 뒤에 송의 관제를 받아들여 중추원과 삼사를 설치하고, 고려의 실정에 맞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설치함으로써 세 계통의 기구들이 어우러진 고려만의 독특한 정치 체제를 마련하였다.

㉠ 지방을 처음에 12목(牧)을 설치하였으나 후에 10도(道)·12주(州)로 나누어 다스렸다.

㉡ 성종 때에 일시 폐지되었다, 현종(1010) 때 다시 부활하였다

㉢ 노비환천법(987): 고려 성종 때 제정 실시한 노비안검법으로, 해방된 노비를 다시 노비로 되돌리게 한 법. 이 법을 제정한 계기가 된 최승로의 건의는, 노비의 방랑에 따른 신분제 문란의 측면보다는 광종이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한 노비안검법의 실시로 귀족세력이 입은 인적·물적 손실을 되찾으려는 측면이 더욱 강하였다. 결국 성종은 귀족무마책의 일환으로 이 법을 제정한 것이다

㉣ 정종(945~949)의 업적이다

20. 다음 문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 보 기 >

- ㄱ. 임진왜란 중에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 ㄴ. 갑오개혁을 계기로 발급이 금지되었다.
- ㄷ. 전력 강화나 재정 확충이 주된 목적이었다.
- ㄹ. 사찰 중수 비용 마련을 위해 발급되기도 하였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⑤

* 공명첩의 발행과 신분제의 변동

공명첩: 실직은 주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벼슬을 주던 임명장이다, 임진왜란 때에 공명첩을 가진 관리가 팔도를 돌면서 군량을 바친 자나 군공을 세운 자에게 공명첩을 발부하였다. 이후 전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자 서얼, 상민들은 이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신분상승을 하였다. 뿐만아니라 국가는 재정이나 군량이 부족 할 때 또는 진흥을 위하여, 심지어는 사찰을 중수하는 비용을 얻기 위하여 납발되기도 하였다.

㉠ 언제 공명첩 발급이 금지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순조때의 공노비 해방과 철종 때에 이미 양반수가 70%에 달하므로 공명첩을 통한 신분 상승의 잇점은 갑오개혁(1894) 이전에 이미 사라졌다

2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영조 45년 이수득이 상소를 올려 (가)의 허통을 청하기를, “옛날에는 융숭한 예와 패백으로 이웃 나라 선비를 대우하였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나라 안 인재를 묶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등용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합니다. …… 시골 천인의 자식은 때때로 훌륭한 버슬을 하는데 세족, 명가의 이들은 자자손손 영원히 묶여 있습니다. 인재를 버리고 등용하는 것이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 ① 중서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 ② 조례나 나장 등이 포함되었다.
- ③ 원칙적으로 진사과의 응시가 금지되었다.
- ④ 임진왜란 이후 차별이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 ⑤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기도 하였다.

정답: ②

* 서얼

조선 후기 사회 변동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얼(양인첩의 자제:서, 천입 첩의 자제:얼)과 중인 등 중간 계층의 역할도 커졌다. 서얼은 양반 사대부의 소생이면서도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하여 여러 분야의 사회 활동에서 각종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커져 갔다. (천자수모:賤者受母-한품서용(限品敍用))

서얼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전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자 서얼들은 이를 이용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영·정조 때에 서얼을 어느 정도 등용하자 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수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상소하여 동반이나 홍문관 같은 청요직으로의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정조 때에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얼 출신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 ① 서얼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중서라고도 불리었다
- ② 조례·나장은 칠반천역 중 하나이다(신량역천)·조례는 중앙관청에서 잡역을 담당하고, 나장은 형사업무를 담당하였다.
- ③ 이들은 문과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간혹 무관직에 등용되기도 하였다.

22. (가) 유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왕실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냈다.
- ② 소격서에서 주관하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 ③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풍요를 기원하였다.
- ④ 신농씨에게 제사를 지내고 왕이 친경하였다.
- ⑤ 성균관 유생들이 공자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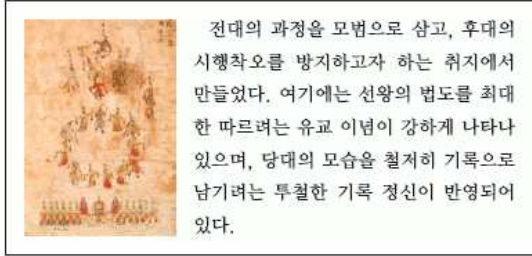
* 사직(社稷)에 대하여

사직(社稷): 백성의 복을 위해 제사하는 국토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을 아울러 이르는 말.

조선의 태조는 개국하여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1395년(태조 4) 경복궁 ·종묘와 더불어 가장 먼저 사직단을 건립하여 국가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다. 나라가 망하면 종묘 사직이 없어지므로 조선시대에도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종묘 사직이 망한다는 말로 비유할 만큼 종묘와 사직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 ① 종묘를 말한다
- ② 소격서에서는 도교의 일월성신을 구상화한 상청(上淸)·태청(太淸)·옥청(玉淸) 등을 위하여 삼청동(三淸洞)에 성제단(星祭壇)을 설치하고 초제(醺祭) 지내는 일을 맡아보았다.
- ④ 선농단을 말하며 농사와 인연이 깊은 신농씨와 후직씨를 주신으로 모시고 풍년들기를 기원하던 제단.(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 ⑤ 성균관내 대성전에서 문묘(공자에 대한 제사) 제사를 지냈다

23.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전대의 과정을 모범으로 삼고, 후대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여기에는 선왕의 법도를 최대한 따르려는 유교 이념이 강하게 나타나 있으며, 당대의 모습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기려는 투철한 기록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 ① 일의 경과와 참여 관리 등을 기록하였다.
- ② 「주례」의 체계를 본떠 6전으로 구성하였다.
- ③ 사초, 시정기 등을 종합, 정리하여 편찬하였다.
- ④ 유교적 통치 규범을 성문화하기 위해 편찬하였다.
- ⑤ 군현의 연혁, 지세, 인물, 산물, 교통 등을 수록하였다.

정답: ①

* 조선왕조의궤(儀軌)

의궤: 조선시대에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기록.

조선시대 왕실에서 거행된 여러가지 의례의 전모를 소상하게 기록한 서책이다. 실록 등에도 의례의 기록이 남아있지만 내용의 규모가 방대하고 소상하며 행차모습 등 그림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의궤로 제작하였다. 왕실의 혼사, 장례, 부묘, 잔치, 건축, 잔치, 편찬 등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여 유사한 행사가 있을시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내용은 행사가 준비되어 진행된 과정, 업무의 분장, 동원된 인원, 물자 및 비품의 조달과 배정, 경비의 수입과 지출, 건물 및 비품의 설계 및 제작, 담당 관리와 동원된 인물, 행사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관계된 사실 모두를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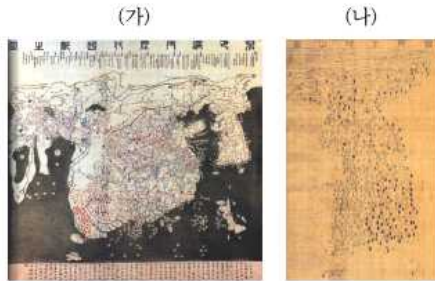
조선시대 의궤에는 그림이 다수 실려있는데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도구와 건물은 그림으로 그려 기록하였고 의례의 행렬을 표현한 반차도(班次圖)와 같은 그림은 화려한 천연색으로 실었다

2007년 6월 '조선왕조의궤'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되었다.

② 정도전.권근.조준 등 관학파들은 주례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조선경국전', '경제육전', '경국대전' 등 모두 조선의 기본 법전은 중국 6전 체제를 따랐다.

- ③ 조선 왕조 실록
- ④ 경국대전
- ⑤ 동국여지승람

2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보기>

- ㄱ. (가) - 태종 때 김사형, 이무 등이 제작하였다.
 ㄴ. (가) - 현존하는 세계 지도 중 동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ㄷ. (나) - 전국 8도의 군현과 병영, 수영이 표시되어 있다.
 ㄹ. (나) - 임진왜란 때 왜군에게 약탈되어 현재 쓰시마 섬에 보관되어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 조선 전기의 지도

(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태종 때에 김사형·이무·이회 등에 의해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 지도가 만들어졌다. 이 지도의 필사본이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세계 지도 중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원나라 이택민의 <성교광피도>와 승려 청준의 <혼일강리도>를 중국에서 들여와 이 지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추가하여 완성한 것이다.

대중화, 소중화 사상에 입각하여 중국과 조선을 너무 과장되게 크게 그린 존화사상을 볼 수 있다.

일본 류코쿠 대학 소장

(나) 조선방역지도: 1557~1558년(명종)에 제작된 조선 8도 주현도(州縣圖).

지도는 함경도 청색, 평안도 초록색, 황해도 백색, 강원도 연두색, 경기 및 충청도 황색, 전라도 백색, 경상도는 적색으로 그리고, 지명·수영(水營)·병영(兵營) 등을 타원형 안에 기입하였다. 지도의 형태는 현재의 전국 지도와 비슷하나, 만주지역을 포함하고 남쪽으로 쓰시마섬(대마도)과 제주도를 그려 넣었다.

이 지도는 임진왜란 때 왜군에게 약탈되어 쓰시마섬에 보관되어 오던 중, 1930년 조선사편수위원회에서 쓰시마 도주 소씨[宗氏] 문서와 함께 입수하여,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관리되고 있다. 한국 지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25. 다음 제도를 도입한 국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 도내의 모든 전토에서 1결당 쌀 16말씩을 부과 징수하되, 봄, 가을로 나누어 8말씩을 징수한다.
- 봄, 가을로 7말씩은 선혜청에서 수납하여 경기도에서 상납하던 모든 경납물의 구매에 사용하고, 1말씩은 각 군현에 유치하여 수령의 공사(公私) 공비(供費)로 사용하게 한다.

< 보 기 >

- ㄱ.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였다.
- ㄴ. 적상산에 실록 보관을 위한 사고를 지었다.
- ㄷ. 기유약조를 맺어 일본과 교섭을 재개하였다.
- ㄹ. 명의 요청으로 심하(深河)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 광해군의 전후 복구사업과 중립외교

광해군(1608~1623): 왜란 후의 국제 정세의 변화(명.청 교체기)속에서 명과후금 사이에 중립 외교를 전개하면서 전후 복구 사업을 추진했다.

전후 복구 사업으로는 허준을 통한 동의보감 편찬(1610), 적상산(현 전북 무주) 사고(史庫) 정비, 대동법(경기도)을 실시(1608) 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기유약조(1609)를 맺어 다시 교섭을 재개하였다, 또한 명의 후금 공격 요구에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을 받은 조선은 거절할 수 없었고, 새롭게 성장하는 후금과 적대 관계를 맺을 수도 없어,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1만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명을 지원하게 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명령하였다. 결국 조·명 연합군은 후금군에게 패하였고 강홍립 등은 후금에 항복하였다

㉠ 사간원의 독립은 태종 때이다.

26. 대화의 (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합좌 기관으로 백관과 서무를 총괄하였다.
- ② 경적을 간행하고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였다.
- ③ 경연에 참가하고 국왕의 자문을 담당하였다.
- ④ 순군부가 개편되어 이루어진 사법 기관이었다.
- ⑤ 시정의 득실을 논하고 백관의 규찰과 풍속의 교정을 담당하였다.

정답: ⑤

* 조선의 언론, 감찰 기관 사헌부

* **사헌부**: 조선의 언론 기관인 3사의 하나로서 시정 논의, 백관 규찰, 기강과 풍속 정립, 억울한 일 해결 등의 기능을 하였다. 같은 3사 중 하나인 사간원과 함께 양사를 이루고 서경을 담당하였다.

해치(해태): 시비, 선악을 잘 분간한다는 상상의 동물인 해치는 정의(正義)를 상징하는 동물로서 사법(司法)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헌부의 상징 흉배이다

- ① 의정부를 말한다
- ② 교서관(경적 간행)을 말한다
- ③ 홍문관을 말한다
- ④ 의금부(왕명을 받드는 특별 사법기관)

27. 다음 규정이 반포된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무릇 토지는 매년 9월 보름 이전에 수령이 그 해의 농사 형편을 살펴 등급을 매긴다. 관찰사가 이를 삼의 보고하면 의정부와 6조가 함께 의논하여 임금에게 보고하고 조세를 거둔다. 소출이 10분의 10이면 상상년으로 정해 1결당 20말, 9분이면 상중년으로 18말, 8분이면 상하년으로 16말, 7분이면 중상년으로 14말, 6분이면 중중년으로 12말, 5분이면 중하년으로 10말, 4분이면 하상년으로 8말, 3분이면 하중년으로 6말, 2분이면 하하년으로 4말씩 거두며, 1분이면 면세한다.

< 보기 >

- ㄱ. 1결당 2.2말씩 삼수미를 내는 지주
- ㄴ. 관료인 남편이 죽자 수신킨을 지급받는 미망인
- ㄷ. 6종류의 양전척을 사용하여 토지를 측량하는 관리
- ㄹ. 과전으로 받은 토지의 생산량을 직접 조사하는 수조권자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ㄷ

정답: ③

* 연분 9등법 반포 당시의 경제상(15C 초)

세종 때에 조세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또한 당시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전직관리에게도 토지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킨, 홀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킨도 세습할 수 있었다.

㉠ 삼수미: 조선시대 훈련도감 소속의 사수·포수·살수의 삼수군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세미(稅米).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황해도·경기도의 6도에서 1결(結)당 1말의 특별세를 부과하고, 다시 세액을 2.2말로 늘렸다

㉡ 양전척(양지척): 농지의 넓이를 측정하고 표시하는 데 쓰인 자.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 토지에 대한 세금 제도)의 실시로 토지의 등급을 여섯으로 나누면서 토지를 측량할 때 쓰는 자도 주척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등급에 따라 그 길이를 다르게 만들었다

㉢ 1391년에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전국의 토지를 세 등급으로 나누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면적인 1결의 토지세를 수확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말로 정하되, 추수기에 관원이 직접 논밭에 나가 수확량을 보고 세금액수를 감면해주는 답험손실법을 실시하였다.(관답험)

1444년 전분6등법, 연분9등법과 함께 공법(貢法)이 마련되어 변동적이긴 하지만 국가에 의한 객관적 기준의 세율이 적용되어 답험손실법의 폐단을 일부 시정되었다.(이전보다 더 정확한 주척(周尺)을 이용한 결부제 병행)

* 과전법 시행에 따른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취과정에서는 여전히 전주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규정을 넘는 과도한 수취가 항상 문제가 되었고 그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과 반발도 확산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전주(수조권자)들의 수조권 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해 전객농민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관답험제(官踏驗制)·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 등을 실시했다

* 고려는 수조권을 국가가 대행하여 녹봉 형식으로 주는 관수관급제 형태이다

28. 밑줄 그은 '풀'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이 풀은 남령초(南靈草)라고도 불린다. 근래에 일본으로부터 왔으며 현재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심는다.

- 「지봉유설」-

• 이 풀의 큰 잎은 7, 8촌(寸)쯤 된다. 가늘게 썰어 대나무 통에 담거나 혹은 은(銀)이나 주석으로 통을 만들어 담아서 가지고 다니다가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데, 맛은 쓰고 뱀다. 가래를 치료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하는데, 오래 피우면 가끔 간(肝)의 기운을 손상시켜 눈을 어둡게 한다.

- 「인조실록」-

< 보 기 >

- ㄱ. 개항 직후에 전매제의 대상이 되었다.
- ㄴ. 조선 후기에 주요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 ㄷ.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전 상인이 등장하였다.
- ㄹ. 사용에 신분적 제약이 있어 주로 양반이 애용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조선 후기 담배의 전래와 상품작물화

한국에 담배가 들어온 시기와 경로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국내 문헌에 단편적으로 나타난 기록들을 종합하면 1608~1616년에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추측할 수 있다.

조선 선조 때부터 인조 때까지 명관이며 석학이었던 이수광이 1614년에 발간한 《지봉유설》은 ‘담배’ 초명은 또한 ‘남령초’라고도 하는데 가래(담) 치료에 탁월하는 등 의약품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 전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개항(1876) 직후가 아닌 구한말인 1899년 궁내부 내장원에 홍삼사업을 담당하는 삼정과(蔘政課)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들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 조선 정부는 담배를 파는 시전으로서 엽초전(葉草廛), 절초전(折草廛), 연초전(煙草廛) 등을 두었다

㉣ 한국에 전래된 담배 피우는 풍습은 이렇다 할 기호품이 없었던 당시에 상하 계급을 막론하고 급속히 퍼져 나갔다

29. 다음 농법의 보급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오월이라 중하되다. 많중 하지 절기로다.
남풍은 때맞추어 백추(寒秋)를 재촉하니
보리밭 누른빛이 밤사이 나겠구나.
문 앞에 타를 닦고 타백장(打麥場) 하오리라.

목동은 놀지 말고 농우(農牛)를 보살펴라.
뜰물에 풀 먹이고 이슬풀 자로 뜯겨
그루같이 모심기 제힘을 빌리로다.
보리짚 말리고 솔가지 많이 쌓아
장마나무 준비하여 임시 걱정 없이하세.

< 보 기 >

- ㄱ. 논을 밭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해졌다.
- ㄴ. 농기구가 개량되고, 농종법이 시작되었다.
- ㄷ. 노동력이 결감되어 광작 경영이 가능하였다.
- ㄹ. 토지 소유와 경영의 집중화로 농민층이 분화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이앙법(모내기법)의 확산과 농업의 변화

조선 후기에 농민들은 농업을 경영하는 방식도 변화시켰다. 모내기법(이앙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 수 있게 되자 농민들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였다(광작). 지주들도 직접 경작하는 토지를 넓혔지만 자작농은 물론 일부 소작농도 더 많은 농토를 경작하여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다(부농가능).

광작이 가능해지면서 대부분의 농토를 소작시키고 일부 농토만 직접 경영하던 지주들도 소작지를 회수하여 노비를 늘리거나 머슴을 고용하여 직접 경영하였다. 이 때문에 소작농들은 소작지를 잃기는 쉬워지고 얻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농민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농촌에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도 품팔이로써 생계를 유지해야 하였다.(농민층의 분화)

㉠ 조선 후기에는 쌀의 상품화가 활발하였다. 쌀은 이 시기에 이르러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 장사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었다. 쌀의 수요가 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하였다.

㉡ **농종법:** 밭고랑과 밭이랑의 구분이 없는 평평한 토지인 만전에 씨앗을 고루 뿌리는 만파를 한 다음 흙을 일구어 씨앗을 덮는 기토복종(起土覆種)을 통하여 밭두둑을 만드는 경작법이다. 따라서 밭고랑은 파종하는 곳으로서가 아니라 도랑으로 만드는 데 불과하고, 종자는 밭이랑 위에서 재배되는 것이다.

이 경작방법은 조선 중기의 견종법(밭고랑에 씨를 뿌리는 파종법)이 실시될 때까지 쓰여졌고, 현재에도 곡물의 종류에 따라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

30. 대화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공신호 삭탈에 반발하여 일어나게 되었다.
- ② 김일손과 이극돈의 사초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 ③ 신사무옥으로 이어져 훈구파가 정국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양재역 벽서 사건을 통해 윤원형이 조정을 장악하는 배경이 되었다.
- ⑤ 임사홍이 폐비 윤씨 사건을 연산군에게 밀고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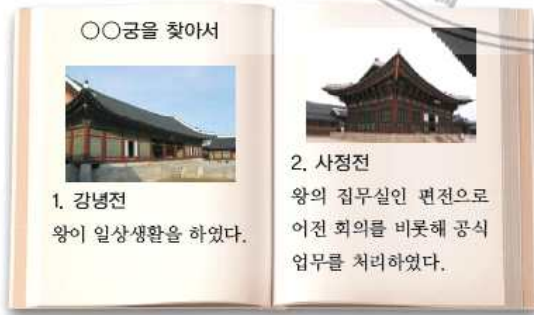
* 무오사화(1498)

무오사화(1498): 1498년(연산군 4) 김일손 등 신진사류가 유자광 중심의 훈구파에게 화를 입은 사건이다. 김일손과 이극돈의 사초(史草)가 발단이 되어 일어난 사화로 조선시대 4대 사화 가운데 첫 번째 사화이다.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성종 때 춘추관의 사관(史官)으로 있으면서 훈구파 이극돈의 비행과 세조의 찬탈을 사초에 기록한 일로 김일손과 이극돈 사이에도 반목이 생기게 되었다. 유자광·이극돈은 김종직 일파를 증오하여 보복에 착수하였다.

김일손이 사초에 삽입한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이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일을 비방한 것이라 하고, 이를 문제삼아 선비를 싫어하는 연산군에게 고하여 이 사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 ① 공신호 삭탈(위훈삭제)이 문제가 되어 일어난 사화는 중종 때의 기묘사화(1519)이다
- ③ 신사무옥(1521): 조광조의 현량과에 의해 발탁된 안처겸 등이 훈구파 남곤, 심정 등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송사련에 의해 무고(誣告)된 사건
- ④ 정미사화(1547): 을사사화(1545)의 여파로 1547년(명종 2)에 일어난 사화이며 윤원형 일파가 대운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건이다. (양재역 벽서 사건 관련)
- ⑤ 갑자사화(1504)

31. 자료와 관련된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하고 머물렀다.
- ② 규장각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 남아 있다.
- ③ 도성의 북쪽에 있다고 하여 북궐이라고도 불렸다.
- ④ 일제에 의해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이 만들어졌다.
- ⑤ 서운관 앞에 있던 고개에서 궁궐의 이름이 유래되었다.

정답: ③

* 조선의 정궁 경복궁에 대하여

<경복궁의 주요 건물>

- 정문 **광화문**과 좌우에 **종묘·사직**이 있다
- **근정전**: 정전(正殿). 왕과 신하의 집전실
- **교태전**: 경복궁 중앙에 있음(중전), 왕비의 침전
- **강녕전**: 경복궁 안에 있던 왕의 침전
- **사정전**: 정전인 근정전 뒤에 있는 편전(便殿)으로 왕이 평상시에 거처하면서 정사를 보던 건물

① 덕수궁: 조선 시대의 이궁. 원래의 명칭은 경운궁(慶運宮)이지만, 1907년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한 뒤 이곳에 살면서 명칭을 덕수궁(德壽宮)으로 바꾸었다.

② 창덕궁 후원 부용정 맞은편 건물인 주합루 2층에 규장각이 있었다.

③ 경복궁은 도성 4대문의 중앙에서 볼 때 북쪽에 있다

④ 창경궁: 조선 시대의 이궁 중 하나였지만 일제에 의해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이 설치되고 벚꽃을 키워 놀이공산이 되는 수모를 겪었다

⑤ 운현궁(雲峴宮):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의 사가(私家)로서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가) 대한 제국 인민으로 전답, 산림, 천택, 가옥을 가진 자는 이 관계(官契 : 관청에서 증명한 문서)를 반드시 갖되, 구권(舊券)은 하나도 빠짐없이 감리소에 납부할 것

(나)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① (가) - 사업 추진을 위해 지계아문을 설치하였다.
- ② (가) - 개항장 밖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였다.
- ③ (나) - 안정적인 지세 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 ④ (나) - 역둔토, 미간지 등이 조선 총독부에 의해 점유되었다.
- ⑤ (가), (나) - 예산 문제로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었다.

정답: ⑤

* 대한제국의 양전사업과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가) 대한제국의 양전사업(토지조사사업)

전결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양지아문을 설치하여 양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계제도를 채택하여 지계아문에서 토지문권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하였다(전 국토의 2/3 조사, 지계 발급은 강원과 충남 일부 지역)

(나)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2~18)

- 실시목적: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명분으로 토지 소유권 재조사 → 실제로는 토지의 약탈, 토지세의 안정적 확보
- 방법: 복잡한 구비 서류, 기한부 신고제
- 총독부의 토지 약탈: 불분명한 국유지와 민유지, 미정리된 역둔토, 소유권이 불확실한 미개간지, 미신고 농토, 공공 기관 토지, 마을·문중의 토지의 상당 부분을 총독부가 차지 → 동양척식 주식회사 등 토지 회사나 일본인에 헐값으로 불하
- 식민지 지주제의 확대: 지주의 권한 강화, 소작농의 권리 약화 → 소작 농민은 영구경작권(도지권)을 상실,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 ↔ 소작 쟁의 발생의 배경
- 농민의 몰락 → 만주, 연해주 등 국외 이주

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33. 자료와 관련된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6·25 전쟁 중에 실시되었다.
- ② 발췌 개헌이 이루어진 직후 실시되었다.
- ③ 진보당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마산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켰다.
- ⑤ 사사오입 개헌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정답: ④

* 1960년 3.15 부정선거

1960년의 정.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은 여당(자유당)은 이승만,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조병옥이 겨루다가 돌연 조병옥이 병사하고 이승만 1인 후보가 되었으며, 부통령은 전임 부통령이었던 민주당의 장면이 다시 나왔으나 부정선거로 여당인 이기붕에 의해 패하였다(3.15 부정선거). 원래 민주당 인물이었던 김준연은 1957년 동당에서 제명되고 사진에서처럼 통일당을 창당하고 부통령에 나섰다.

- ① 발췌개헌(1952)에 의한 직선제로 치루어진 제 2대 대선(1952)이다
- ② 상동
- ③ 제 3대 대선(1956) 때에 야당 후보로 나온 조봉암의 선전이 있어 위협을 느낀 이승만 정권에 의해 후일 조봉암이 창당한 진보당이 탄압을 받았다(진보당 사건: 1958)
- ④ 3.15 부정 선거는 마산 시위를 불러 일으키고, 이때의 김주열 열사 주검은 4.19 혁명을 가져왔다
- ⑤ 사사오입 개헌(1954):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개헌.

34. 다음 회담이 열렸던 시기의 남북 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회담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총 8차례 개최되었다. 그 중 제3차 회담에서 남북은 각각 불가침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듬해 열린 제4차 회담에서는 남북 기본 합의서에 대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는데, 이 회담에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를 제기하였다.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회담에서 남북은 마침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였고, 12월 말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으로 이어졌다.



- ①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 ② 남북 적십자 회담이 시작되었다.
- ③ 한국 정부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④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 ⑤ 북한은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정답: ③

* 남북기본합의서 합의(1991.12)

남북기본합의서 합의는 6공 정부(노태우 정권: 1988~1993) 때의 일이며, 이때 북방 정책(공산권 수교: 구 소련, 중국)이 이루어졌다

<6공 주요 연표>

1988: 6공시작(노태우, ~1993)

여소야대 총선, 국민연금 도입

7.7선언: 북한에 대한 교류.협력 제안
및 북방(공산권)외교 천명

1989: 전교조 창립(합법화는 1999)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연합제안 등장)

1990: 3당합당: 노태우(민정당)+ 김영삼
(민주당)+ 김종필(공화당)=>민자당
한.소 수교

1991: 북한 두만강개발계획(나진.선봉)

8월: 남북 유엔 동시가입

12월: 남북기본합의서(남북간의 2번째
합의문서, 북한의 실체 인정,
남북 화해.불가침 교류.협력 강화 선언)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1992: 한.중 수교

① 김대중 정권(2000.6.13)

② 박정희 정권(1971)

④ 전두환 정권(1985)

⑤ 전두환 정권 당시 북한 김일성 정권
(1984)

35.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그는 을사조약을 저지하기 위한 고종의 특명을 받고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루스벨트가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의한 자국의 이익 때문에 만나 주지 않아 실패하였다. 다시 고종 황제로부터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 특사로 임명되어 조선의 주권 확립을 세계만방에 호소하다가 일본의 심한 박해를 받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0년에 외국인 최초로 건국 공로 훈장 태극장에 추서되었다.

고종의 헤이그 특사 임명장

- ① 동문학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 ② 광혜원의 설립에 깊이 관여하였다.
- ③ 한국 최초의 서양인 고문으로 부임하였다.
- ④ 대한 제국의 외부 고문으로 임용되어 활동하였다.
- ⑤ 세계의 지리와 문화를 소개하는 「사민필지」를 저술하였다.

정답: ⑤

* 지한 인사 헐버트(1863~1949)

1886년 소학교 교사로 초청을 받고 D.A. 벙커 등과 함께 대한, 육영공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다. 1905년 을사조약 후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장하여, 고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미국에 돌아가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1906년 다시 대한, '한국평론: The Korea Review'을 통해 일본의 야심과 야만적 탄압행위를 폭로하는 한편, 이듬해 고종에게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 2차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도록 건의하였다. 그는 한국 대표보다 먼저 헤이그에 도착, '회의시보: Courier de la Conférence'에 한국 대표단의 호소문을 실게 하는 등 한국의 국권 회복운동에 적극 협력하였다.

190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 정착하면서 한국에 관한 글을 썼고, 19년 3·1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서재필이 주관하는 잡지에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49년 국민으로 초대를 받고 내한하였으나, 병사하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저서에 '한국사: The History of Korea(2권)', '대동기년(大東紀年)(5권)', '한국건문기: The Passing of Korea', '사민필지' 등이 있다.

- ① '동문학(1883)'이 아니라 '육영공원(1886)'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다.
- ② 광혜원은 알렌과 관련이 있다.
- ③ 임오군란(1882) 이후 청에 의해 파견된 독일인 뮐렌도르프가 처음이다
- ④ 대한제국의 외부 고문은 일본에 의한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 파견된 미국인 스티븐슨이다
- ⑤ 사민필지: 미국인 선교사 H.B.헐버트가 세계 각국의 산천·풍토·정령(政令)·학술 등을 한글로 간략하게 소개한 세계지리서.

36. 다음 만평이 그려진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철제(鐵蹄) 대용품 나막신!
최근에는 철 기근으로 철제도 폭등했고,
말도 나막신을 신게 되나?

- ① 신은행법을 제정하여 은행 합병을 단행하였다.
- ②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전쟁 물자를 동원하였다.
- ③ 회사령을 제정하여 우리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압하였다.
- ④ 농촌진흥 운동을 시작하여 농촌의 자력갱생을 꾀하였다.
- ⑤ 조선 관세령을 철폐하여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정답: ②

* 일제의 총동원령(1938)에 의한 전쟁 물자 공출(무기 생산에 필요한 쇠붙이 공출)

<국가 총동원 체제: 1938~1945>

배경: 전쟁의 확대 → 인력과 자원의 통제와 수탈 강화(국가 총동원법: 1938)

노동력의 수탈:

- 국민 징용령(1939): 100만여 명의 청년을 탄광, 철도 건설, 군수 공장 등에 동원.
- 여자 정신대 근로령(1944): 12~40세의 배우자 없는 여성을 강제 동원→군수 공장 종사, 위안부
- 병력 동원: 지원병제(1938), 학도 지원병제((1943), 징병제(1944)를 실시하여 총 2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동원

물적 자원의 수탈:

- 식량 수탈 강화: 산미 증식 계획 재개, 가축 증식 계획, 미곡 공출제와 식량 배급제 실시
- 전쟁 물자 공출: 무기 생산에 필요한 쇠붙이 공출

- ① 신은행법(1927): 1911년 공포된 '조선은행법'을 개정한 법으로서 은행 합병을 단행하였다
- ③ 회사령(1910~1920): 허가제, 자유로운 민족 기업 설립 방해
- ④ 농촌진흥운동(1930년대): 소작쟁의 등으로 불만이 표출되는 소작농을 무마하기 위한 일환. 1934년 '조선농지령'(소작권 이동 억제 내용)으로 나타났다
- ⑤ 조선 관세령 철폐(1923): 일본 상품의 수출 증대 도모 ↔ 물산 장려 운동

37. 밑줄 그은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 전교하기를, "이 기구의 처소(處所)를 차비문(差備門) 근처에 정하라."라고 하였다.
 - 이 기구는 국내의 크고 작은 일을 전적으로 의논한다. 총재 1인은 총리대신이 겸임하고, 부총재 1인은 의원 중에서 품계가 높은 사람이 겸임하며, 회의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이고, 서기관은 3인인데 1인은 총리대신의 비서관을 겸임한다.
- 「고종실록」-

— < 보 기 > —

- ㄱ. 민영익, 윤치호가 회의원으로 참여하였다.
- ㄴ. 퇴직한 관리들의 상업 경영을 허가하였다.
- ㄷ. 의정부를 내각으로, 8아문을 7부로 개편하였다.
- ㄹ. 흥선 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내각이 주도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1차 갑오개혁 추진 기구 '군국기무처'

군국기무처: 1894년 7월 일본은 경복궁을 무력점령한데 이어 대원군을 섭정으로 앉히며 제1차 김홍집 내각을 성립케 하였고, 이어 김홍집·김윤식·김가진(온건개화파) 등 17명의 회의원으로 구성된 초법적 임시 합의 기관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1차 갑오개혁을 추진케 하였다.

군국기무처는 중앙과 지방의 제도·행정·사법·교육·사회 등 제반문제에 걸친 사항을 3개월 동안 208건을 심의 의결하는 개혁의 주체 세력이 되었다.

- ㉠ 윤치호는 1895년에야 귀국하였고, 민영익은 반일적 인물(갑신정변의 피해자)로서 군국기무처 회의원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 ㉡ 갑오개혁 법령 18조에 보면 “관인(官人)이 휴관(休官)한 이후에 상업을 경영함은 그 자유에 맡길 것”이라 하였다.
- ㉢ 2차 갑오개혁 때는 의정부를 내각이라고치고 1차 때의 8아문을 7부로 개편하였다.
- ㉣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한 온건한 노선의 제1차 김홍집 내각이 추진하였다

33. 다음 잡지를 간행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1921년 1월 베이징에서 창간된 이 잡지는 중국인도 읽을 수 있도록 순한문으로 간행되었다. 잡지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동양 평화 교란, 조선 독립의 필요성, 항일 무장 투쟁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글이 게재되었다.

- ①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제창하였다.
- ②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 등을 저술하였다.
- ③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여 「여유당전서」를 간행하였다.
- ④ 랑케 사학의 기반 위에서 철저한 고증주의를 표방하였다.
- ⑤ 「한국통사」를 저술하여 민족 정신을 '혼'으로 파악하였다.

정답: ②

*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1880~1936)

‘천고(天鼓)’: ‘하늘의 뜻을 울린다’는 뜻의 ‘천고’는 1921년 1월부터 제7권까지 발간됐지만 실물이 확인된 것은 제1~3권이다. 특징적인 것은 단제는 이 잡지의 ‘고고편’의 ‘진왕’에서 부여를 한국 고대사의 중심으로 보았다.

신채호의 역사관: 민족주의 역사학의 기반 확립하였다, 개항기 때에는 <독사신론>을 통하여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향 제시하였고, 일제시대에는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등을 저술, 고대사 연구를 통해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 정신을 강조하였다.

① 안재홍(1891~1965)

③ 조선학운동: 정인보.문일평.안재홍 등 민족주의 역사학들이 1934년 ‘여유당전서’ 간행을 계기로 전개한 민족문화 수호운동

④ 진단학회의 이병도(1896~1989)

⑤ 박은식(1859~1925)

39. 다음을 목표로 삼았던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우리의 분산된 무장 역량을 총집중하여 조국 광복 전쟁을 전면적으로 전개시킬 것
- 중국 항전에 참가하여 중국 항일군과 연합하여 왜적을 박멸할 것
- 정치, 경제, 교육을 평등으로 한 신민주 국가 건설에 무력기간(基幹)이 될 것
- 인류의 화평과 정의의 세계 제민족과 함께 인류발전의 장애물을 소탕할 것

- ①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 ②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여 군사력을 양성하였다.
- ③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가 편입되어 군사력이 증강되었다.
- ④ 지청천을 총사령관, 이범석을 참모장으로 하여 창설되었다.
- ⑤ 군대의 행동 준수에 의해 독자적 군사 작전을 수행하였다.

정답: ④

* 임정과 한국광복군

< 광복군의 창설과 활동 >

- ① 창설(1940):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충칭에서 임시정부가 창설(총사령관 지청천, 참모장 이범석)
- ② 대일 선전 포고(1941):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
- ③ 조선의용대의 일부 합류: 1942년 7월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가 광복군에 편입되었고, 김원봉은 광복군 부사령(副司令)에 취임
- ④ 영국군과 연합 작전 전개: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인도 전선에 파견(1943)
- ⑤ 국내 진입 작전 준비: 미국의 도움으로 국내 정진군의 특수 훈련 → 일제 패망으로 실현 못함

- 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조선의용군)의 대표적 승리
- ② 김원봉이 설립(1932)
- ③ 조선의용군: 중국 옌안에 있는 조선독립동맹 산하 부대로서 무정, 김창만 등이 이끌던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모태가 되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합류하며 중국 공산당 산하 팔로군과 함께 항일전을 펼치고, 해방 이후 일부가 1950년 6.25 직전에 북한 인민군에 대거 편입되었다.
- ⑤ 한국광복군은 1941년 12월 중국정부 군사위원회에서 광복군은 항일작전 기간 중에는 중국 군사위원회에 직속되어야 한다는 등 9개 항(項)의 조건을 수락하였으므로 독자적 군사작전이 불가능하였다.

40. 다음 방침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로 옳은 것은? [2점]

병합 당시에 적절 유효했던 제도 및 시설 중에는 시세의 진운과 조선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것도 있다. 헌병 경찰제 대신에 보통 경관에 의한 경찰 제도를 채택하고, 복제를 개정하여 일반 관리와 교원 등의 제복대검(制服帶劍)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 등을 고려하려고 한다. 요컨대, 문화적 제도의 혁신으로 유도제서(誘導提撕)하고 그 행복과 이익 증진을 도모하며 장래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에 응하여 정치상·사회상의 대우에 있어서도 일본인과 같은 취급을 할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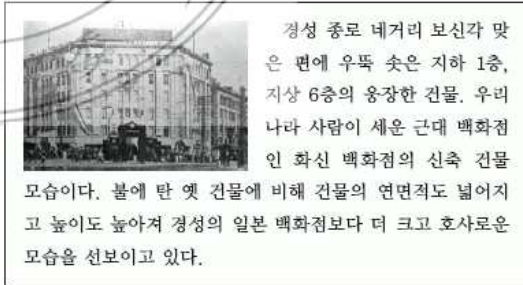


정답: ⑤

* 1920년대 문화통치(1919~1931) 기간에 지어진 건축물

- ① 명동성당: 서구 양식 건축의 효시로서, 1892년부터 착공이 시작되어 1898에 완성
- ② 한국은행 본관: 일본 메이지시대 신건축의 권위자로서 도쿄역을 설계한 다쓰노 긴고의 설계로 1907년 착공, 1912년에 준공
- ③ 구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인 사바틴이 착공한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로서 1885~1890년에 걸쳐져 완공되었다
- ④ 독립문: 독립협회가 영은문을 헐고 자주 독립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모금으로 세운 건물. 1896~1897년 사이에 완공되었다.
- ⑤ 구 서울대학교 본관: 경성제국대학의 본부교사로서 1930~1931년 사이에 완공되었다.

41. 다음 건축물을 볼 수 있던 시기의 회고담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처음 개봉된 아리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
- ② 신극이 공연되면 원각사 앞길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
- ③ 처음 제정된 어린이날 행사에서 소년 운동 선언문이 발표되었어.
- ④ 카프(KAPF)의 결성을 계기로 프로 문학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지.
- ⑤ 유물사관에 입각한 「조선봉건사회경제사」가 화제가 되기도 하였어.

정답: ⑤

* 화신 백화점 개축(1935) 당시의 시대상

화신백화점: 1931년 박홍식(후일 반민특위에 회부됨)이 설립했던 백화점으로 현재 종로타워의 위치에 있었다. 1935년 1월 27일 화신백화점 서관에서 불이 나 전소된 후 박길룡의 설계로 1937년 11월 지하 1층, 지상 6층의 현대식 백화점 건물이 세워졌는데(개축) 당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내부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고 옥상에 전광뉴스판이 설치되었다

- ① 아리랑 영화 공연(1926)
- ② 원각사 신극(은세계) 공연(1908)
- ③ 1923년 방정환을 비롯한 색동회에서 첫 어린이날 행사를 치뤘다.
- ④ 카프(KAFE) 결성(1925)
- ⑤ 백남운의 '조선봉건사회경제사'(1937)

42.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제1관 만약 타방 채약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시당하는 일이 있으면, 한 번 통지를 거쳐 반드시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정해 두터운 우의와 관심을 보여 준다.
제14관 현재 양국이 의논해 정한 이후 대조선국 군주가 어떤 혜택·은전의 이익을 타국 혹은 그 나라 상인에게 베풀면 바다를 건너 배를 운항해 통상·무역·왕래하는 일을 막론하고 해당국과 그 나라 상인이 종래 점유하지 않고 이 조약에 없는 것은 (가) 관리와 백성들이 일체 균점하도록 승인한다.

< 보 기 >

ㄱ. 베베르를 파견하여 비밀 협약을 체결하였다.
ㄴ. 서양 국가 중에서 최초로 조선과 수교하였다.
ㄷ. 천주교 포교 문제로 통상 조약 체결이 늦어졌다.
ㄹ. 『조선책략』에서 연합해야 할 국가로 언급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의 거중조정(제1관), 최혜국대우(14관) 조항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강화도조약 이후 청은 일본의 독점적인 조선 침투를 견제하고 국제사회에 청국의 위신을 높이고자 미국과의 수교를 권고하였다. 이 권고안을 집약한 책이 1880년 수신사 김홍집에 의해 도입된 황준헌의 <조선책략>이다. 이 <조선책략>은 ‘친중’, ‘결일’, ‘연미’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책략>은 조선 내에 큰 영향을 미쳐 조선의 대외정책이 개국정책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문 14개조로 구성된 조약의 주요 내용은 “제3국이 한쪽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다른 한쪽 정부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선을 한다”(제1조:거중조정), “양 체결국은 각각 외교대표를 상호 교환하여 양국의 수도에 주재시킨다”(제2조), “치외법권은 잠정적으로 한다”(제4조),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권은 조선정부에 속한다”(제5조:협정관세), “거류지는 조선영토의 불가결한 부분이다”(제6조). “양국간에 언어, 문예, 법률 등 문화학술교류에 보호와 원조를 다한다”(제11조) 등이다.

이로써 조선은 비로소 구미 자본주의 국가에 직접적인 문호개방을 하게 되었고 양국의 역사적 교류가 시작(서양 국가 중 최초)되었다. 이후 영국, 독일 등 구미 제국과의 조약은 거의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준용하였다.

㉠ 베베르: 초대 러시아 공사

㉡ 프랑스: 1886년 수호통상조약 체결

43. 다음 건축물이 축조된 해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환구단 건립 2년 후에 완공된 이 건축물은 화강암 기반 위에 세워진 3층의 팔각 건물이다. 내부는 통층(通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천장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용의 조각이 있다.

- < 보기 > —
- ㄱ. 대한 천일 은행에서 저금하는 조선인 상공업자
 - ㄴ. 독립 협회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시민
 - ㄷ. 청량리에서 서대문으로 가는 전차를 기다리는 학생
 - ㄹ. 대한매일신보에 보도된 의병 기사를 읽고 있는 지식인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환구단의 황궁우 건립(1899) 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지금의 환구단은 1897년(고종 34) 고종의 황제 즉위식과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옛 남별궁 터에 단을 만들어 조성한 단지이다. 그 뒤 단지 내에는 화강암으로 된 기반 위에 3층 8각 지붕의 황궁우(皇穹宇)를 1899년에 축조하고 신위판을 봉안하였으며, 1902년 고종 즉위 40주년을 기념하는 석고단(石鼓壇)을 황궁우 옆에 세웠다. 석고의 몸체에 부각된 용무늬는 조선 말기 조각의 걸작으로 꼽힌다.

- ㉠ 1899년 설립된 민족계의 근대 은행
- ㉡ 만민공동회(관민공동회)는 1898년에 개최되어서 동년에 해산되었다.
- ㉢ 최초의 전차(청량리~서대문)는 1898년에 개통되어 그 후 일제시대와 해방 후까지 존속하였다.
- ㉣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창립되었다.

44. (가), (나) 정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가) 7·29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신·구파의 파쟁이 더욱 격화되어, 마침내 구파가 분당하여 따로 신민당을 창당하였다. 이에 정부는 원내 안정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나) 정부 수립 직후 실시된 4·26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소수파 정당으로 전락하였고,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이에 정부는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 ① (가) -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시작하였다.
- ② (가) - 경제 개발 계획을 입안하고, 국토 건설단 운동을 추진하였다.
- ③ (나) -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의 청문회가 열렸다.
- ④ (나) - 일부 야당과의 합당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였다.
- ⑤ (가), (나) -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개헌을 통해서 수립되었다.

정답: ①

* 2공(장면 정권:1960~1961) 때 여당인 민주당의 분당(가)과 6공(노태우 정권:1988~1993) 초기의 여당 민정당(나)

(가) 1960년 8월에 출범한 장면 정권(2공)은 신구파간에 갈등이 심해져서 결국 11월에 구파(신민당)와 신파(민주당)로 분당되었다.

(나) 1988년 4.26 총선에서 여당인 민정당이 참패하여 여소야대 국면이 되자 여권은 1990년 전격 3당 합당을 추진하여 거대여당(민자당)이 출범하였다

①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 정책이 시작된 것은 3공 시절인 1970년 8.15선언 이후이다

② 2공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을 입안하였으나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으로 무산되고 이후 박정희 정권 때(1962)부터 추진되었다.

③ 6공 초기(1988)에 5공 비리 청문회가 열리었다.

④ 3당 합당: 노태우(민정당)+ 김영삼(민주당)+ 김종필(공화당)=>민자당

⑤ 각각 4.19 시민혁명(1960)과 6월 민주항쟁(1987)을 통한 민주화 운동 이후의 개헌을 통해 출범한 정부이다

45. (가), (나)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국제적으로 열강이 우리 독립운동에 주목하지 않고 내적으로도 독립운동 단체의 움직임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단체들이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임시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딘가에 있다는 말만 듣는 정도이니 다시금 무장 운동을 준비할 책임 있는 독립운동 기관을 하나 세워야 할 것이다.

(나) 우리는 불과 2천만 동포를 통합하지 못하고 무슨 무슨 계열이니 하여 나뉘어 있다. 단체 불통일과 주도권 싸움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외국에서 무장 해제까지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우리 정부는 마치 빈 집과 같아서 이런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지난 5년 동안 활동한 역사가 있으니 이를 없애지 말고 고칠 것은 고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하다.

- 독립신문, 1923. 1. 24. -

- ① (가) - 이승만이 주창한 독립운동 노선에 반대하였다.
- ② (가) - 국호를 '한'으로 하는 새 정부 결성의 기반이 되었다.
- ③ (나) - 신숙, 문창범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 ④ (나) - 임시 헌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를 개조하려 하였다.
- ⑤ (가), (나) - 국민 대표 회의에서 서로 대립하였다.

정답: ③

* 임정의 국민대표회의(1923)의 창조파(가)와 개조파(나)의 대립

대표 회의(1923)의 소집과 결렬

• 소집 배경

㉠ **임시 정부의 침체** : 만주 지역 독립군과의 연결 단절, 비밀 행정 조직망 붕괴 등 일제의 탄압으로 자금난과 인력난

㉡ **무장 투쟁론**(신숙·문창범·윤해 등)과 **외교 독립론**(여운형·김동삼·안창호 등)의 계속된 노선 갈등

• 경과: 국내, 만주, 연해주, 미주 등에서 활동하는 독립 운동 단체 대표들이 상하이에 모여 임시 정부의 활동과 독립 운동의 방법을 놓고 격론을 벌임 → 개조파와 창조파로 분열되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영향: 1920년대 중반 이후 임시 정부의 침체 → 김구 등에 의해 겨우 명맥 유지

① 창조파는 이승만의 외교독립론을 비판하였다.

② 6월 3일 창조파만으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새로운 기관을 세워 국호를 '한(韓)'으로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창조파는 6월 7일 새로운 헌법 제정과 함께 국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국민대표회의 폐회를 선언하였다

③ 이들은 창조론자들이다

④ 이에 대해(창조파만의 정부 추진) 개조파 위원 57명이 반대성명을 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한 이에 반대하여 내무총장인 김구는 내무령 제1호로서 국민대표회의의 해산을 명령했다.

46. (가)~(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 ㄱ. (가) - 미쓰야 협정으로 타격을 입었다.
 ㄴ. (나) - 대한민국 임시 정부로부터 군정부로 승인받았다.
 ㄷ. (대) - 3부를 개인 본위로 통합한 결과 성립되었다.
 ㄹ. (라) - 산하 군대가 쌍성보·대전자령에서 승전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항일 무장단체

(가) **대한독립군단**: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활약하던 제 독립군들은 그 해 말의 간도참변으로 인하여 만.소 접경지역인 밀산부에서 모여 결성. 총재에 서일, 부총재에 김좌진·홍범도·조성환, 총사령에 김규식, 참모총장에 이동녕, 여단장에 지청천을 임명하여 창설하고 이듬해 연해주 자유시로 근거지를 옮겨갔으나 자유시참변(1921)을 겪었다

(나) **참의부**: 남만주 지역의 여러 독립군 단체들이 모여 만든 3부 중의 하나(1923). 일정 산하의 직할 부대로 승인받았다

(다) **국민부**: 1929년 민족유일당 차원의 무장투쟁을 위하여 3부 통합운동 중 주로 남만주지역을 무대로 결성된 단체.

(라) **한국독립군**: 1930년대 초반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를 모태로 한국독립당 산하의 부대로 사령관은 지청천이며 한중연합작전(중국 호로군)을 통해 쌍성보.사도하자.대전자령의 승리를 이끌었다.

㉠ 미쓰야협정은 1925년 만주 군벌 장작림과 일본과 맺은 협정으로 만주에서 독립군 토벌과 일본으로의 인도를 협약하였다. 이로인하여 당시 3부(참의부.정의부.신민부)가 타격을 받았다.

㉡ 개인 본위 통합이 아니라 단체통합의 결과물이다.

47. 다음 글을 발표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민족의 일원으로서 반민족행위자라고 지목받게 된 것은 참으로 씻기 어려운 치욕이다. 내 이제 마땅히 자화자책(自悔自責)의 성의를 나타내려 한다. …… 십수 년간에 걸쳐 역사 교과서 편수 위원 등을 지냈으며 조선사 편수회 같은 것은 최후까지 참여하여 『조선사』 37권을 완성하였다. 조선사 편수의 일이 끝나자 내게는 어느 틈에 중추원 참의라는 직함이 돌아왔다. …… 그 후 소위 대동아 전쟁이 발생하자 나는 학병 권유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당시 나의 논지는 이 전쟁이 발생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상과 정열과 역량을 가진 학생 청년층이 전투를 통해 사회 중핵체 결성 능력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 자유신문, 1949. 3. 9. -

- ① 국제 연맹에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 ② 3·1 운동 당시 기미독립 선언문을 기초하였다.
- ③ 일본 자본에 대항하여 경성 방직을 설립하였다.
- ④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독립신문을 간행하였다.
- ⑤ 천도교 신파를 모아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시중회를 조직하였다.

정답: ②

* 반민특위에 선 최남선(1890~1957)

최남선: 한국의 사학자·문인. 잡지 《소년》을 창간,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했다(1908).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 중 하나이다. 독립선언문을 기초(1919)하고 민족대표 48인 중 하나였지만, 이어 친일 활동(조선사편수회 활동 및 학병 권유 활동)을 하여 같은 친일문인 이광수 함께 반민특위에 회부되었다(1949)

역사학자로서는 박은식 등과 조선광문회를 조직하여 고전을 간행하였고 진흥왕순수비를 발견하였으며, ‘불함문화론’을 주장하였다.

- ① 이승만
- ③ 김성수
- ④ 임정산하 기관지인 독립신문은 창간 당시의 이광수가 2대는 박은식이 사장을 맡았다.
- ⑤ 최린

48. (가)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학교 연혁	
1900년 : 00 관할부 공립 소학교로 개교	
1911년 : 00 공립 보통학교로 개칭	
1922년 : 00 공립 심상 소학교로 개칭	
↓ (가)	
1944년 : 00 공립 국민학교로 개칭	

- ① 의무 교육이 실시되었다.
- ② 조선어가 선택 과목이었다.
- ③ 체련과를 두어 무도, 체조를 가르쳤다.
- ④ 민족 교육 탄압을 위한 서당 규칙이 제정되었다.
- ⑤ 일제의 탄압을 받아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실패하였다.

정답: ②

* 3차 조선교육령(1938)과 국민학교에 관한 천황 칙령(1941) 사이의 일제 교육정책

• 3차 조선교육령(1938):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 개칭하고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하였다.

• 국민학교에 관한 천황 칙령(1941): 황국 신민화 교육과 전시동원체제의 일환으로 초등교육기관을 국민학교로 통일하였다.

①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1950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법률로 제정된 시기는 1948년 헌법이 제정. 공포되고 1949년 12월 교육법이 공포되었으며 1952년 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되었다.

③ 3차 조선교육령 개정(1941) 때에 교과목을 국민과, 이수과, 체련과, 예능과, 직업과로 통합하였다.

이전의 체육 교육은 체조과라 불리웠다.

④ 서당규칙(1918)

⑤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일제의 경성제국대학 설립(1924)으로 실패하였다

49.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우표에서 기념하고 있는
동상은 우리 손으로 개정된
국회 의원 선거법에 의해 실시되어
총 210명의 국회 의원을 선출하였지요.
이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 ① 국회 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어요.
- ②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 ③ 비상 재엄령에 의해 조기 해산되었습니다.
- ④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였어요.
- ⑤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규정한 개헌안을 통과시켰어요.

정답: ⑤

* 2대 국회(1950~1954)

2대 국회: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제헌국회 의원들의 2년 임기가 끝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정되었던 미 군정법령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법을 폐지하고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선거를 말한다.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제로,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가해 선거구별로 최다수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직접선거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승만에 비판적인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어 결국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제헌 당시의 대통령 간선제(국회 선출)를 직선제로 바꾸고 양원제를 골자로 한 발췌개헌을 통과시켰다.(1952)

- ①, ②는 제헌 국회
- ③ 8대국회(1971-1972): 10월 유신(1972)으로 인해 조기 해산
- ④ 제헌국회에서 1948년에 법 통과 1949년에 반민특위 구성

50.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가)에 관한 協約

大日本國政府 及 大清國政府는 善隣의 交誼에 鑑하여 圖們江이 淸·韓兩國의 國境된 事를 互相確認하고 拉 妥協의 精神으로서 一切의 辦法을 商定함으로써 淸·韓兩國의 邊民으로 하여금 永遠히 治安의 慶福을 享受케 하고자 하여 左의 條款을 訂立함.

第1條 日·淸兩國政府는 圖們江을 淸·韓兩國의 國境으로 하고 江源 地方에 在하여는 定界碑를 起點으로 하여 石乙水로써 兩國의 境界로 함을 聲明함.

- ① 경학사와 부민단의 역할을 분석한다.
- ② 대조선 국민군단의 결성 과정을 조사한다.
- ③ 한인 애국단의 활동과 그 영향을 파악한다.
- ④ 관리사로 파견된 이범윤의 역할을 알아본다.
- ⑤ 권업회의 회원 명단과 주요 활동을 정리한다.

정답: ④

* 간도협약(1909)과 북간도 지역

간도협약(1909): 일본이 만주에서 안봉선 철도 부설권과 광산 채굴권 등을 얻는 조건으로 청의 간도 영유 인정

① 경학사, 부민단은 서간도(또는 남만주) 지역의 단체이며, 보통 간도라 함은 북간도(백두산 주변 지역-백두산의 오른쪽 지역)을 말한다

② 대조선 국민군단은 1914년 미주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설립한 항일군사단체

③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윤봉길은 중국 본토 상해, 이봉창은 일본 동경에서 의거를 감행하였다.

④ 19C 후반 이후, 우리 민족의 본격적인 간도 개척 → 청의 간도 귀속 문제 제기 → 백두산 정계비의 해석을 둘러싼 조·청 사이의 영토 분쟁 발생 → 대한제국의 간도 관리사 파견(1902, 이범윤, 간도를 함경도 행정 구역에 편입)

⑤ 권업회는 러시아 연해주에 설립된 단체이다